

大學圖書館 運營의 問題와 改善

申 肅 媛

(西江大 英文學科 副教授)

현대의 대학 도서관은 새로운 情報體制와 經營體制를 갖출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大學圖書館 協議會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專門人들의 치밀한 研究와 企劃에 의한 업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학 도서관은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적이며 포괄적인 教育情報機關으로서 그 機能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 머리말

대학의 생명은 學問研究와 勉學에 있다. 그리고 이 教育的 使命을 완수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圖書館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대학의 學究의 活動을 키워 줄 무대인 대학 도서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기로 하자.

他圖書館種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은 우수한 편이며 많은 발전을 하였다는 평을 듣는다. 그러나, 이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유통시키는 精神奉仕機關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 채 다소의 교양 문학도서들을 비치하여 이들 제한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도서관의 主要業務로 삼고 있는 중·고등학교 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과의 비교적인 次元에서 돋보이는 대학 도서관의 발전일 뿐이며, 바람직한 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간 몇몇 대학 도서관들이 현저하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도서관이 藏書數와 貸出業務 統計로 도서관의 업무를 평가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시험공부나 독서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讀書室이거나 또는 자료를 보존하는 博物館 또는 책 창고의 형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학 도서관은 현시대의 신랄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학교육의 普遍化로 인하여 급속하게 증가하는 대학인구,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고력과 분석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教育方法, 학문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와 지식의 폭발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와 생활 등은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대학 도서관에게 새로운 教育 情報業務와 그에 맞는 體制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는 참으로 많고 심각하며 대학

도서관의 現代化는 아직도 요원하다. 빈약한 재정, 부실한 자료와 시설, 미진문가에 의한 도서관 경영, 전문직 사서와 사무직원의 부족, 대학 도서관 사이의 미진한 협력체제 등 도서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부터 대학 당국과 교수들의 도서관에 대한 理解 不足, 비능률적인 관리규정, 도서관인의 수동적 자세, 자료의 원활한 유통을 제한시키는 閉架式制度 등의 개선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요인들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업무와 현대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제, 대학의 생명인 학문연구와 면학의 중심지로서의 대학 도서관은 고도로 성장 변모하고 있는 知識産業時代에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과감한 탈바꿈을 하여야 한다. 즉 종래의 책 창고, 독서실의 침체된 기능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교육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와 정보, 지식, 사상의 전달까지 공급해야 하는 教育資料館(learning resources center)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교육에의 요구가 드높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학의 교육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 도서관이 처한 運營上의 문제점과 改善方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 논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제한된 지면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도서관의 行政體制에 대해서만 국한하고자 한다.

Ⅰ. 圖書館 行政體制

각 대학 도서관은 그 母體인 대학의 목적, 규모, 교과과정, 특수성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른 독특한 業務와 機能을 발휘해야 하므로 어떠한 고정된 基準으로 대학 도서관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운영상의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행정체제에서 附屬機關으로 취급받고 행정일선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활동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여 그 책임 또한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부속기관으로 전락된 도서관은 敎科課程이나 기타 중요한 教育行政에 관한 情報를 신속하게 얻지 못한다. 따라서 도서관 업무에 교과과정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용자들의 외면을 당하게 된다.

대학은 도서관을 學事單位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학내에서의 도서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도서관장은 학장회의, 교무위원회의, 예산편성위원회 등의 學校政이 논의되는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 교육의 요구를 도서관 업무에 반영시켜야 한다.

둘째로, 도서관의 행정체제와 결부된 또 다른 문제는 대학 도서관 운영이 非專門人에 의하여 그것도 短期的인 眼目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였다가 대출만 해 주는 것으로 그 기능이 끝나는 책 창고가 아니다. 더구나 도서관장직은 나이는 교수에게 임시로 물려주는 閑職이거나 名譽職이 결코 아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자료·정보를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보급함으로써 學問發展의 기수가 되어야 하는 도서관 운영은 전문적인 知識과 장기적인 企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심지어는 圖書館學科가 있는 대학에서조차 도서관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도서관 분야에 경험이나 관심도 없는 교수들을 圖書館長으로 임명하고 그 임기도 2~3년에 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業務企劃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발전을 논함에 있어 새전물 증축이나 장서수가 주로 언급됨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도서관장은 전문지식이 있고 도서관에 깊은 관심을 가진 專門人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셋째로, 도서관 직원의 專門職 資質과 地位問題이다. 대학 도서관은 고도로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 정리, 관리, 참고 업무를 위하여 전문적

司盞를 필요로 한다. 현재는 주제 專門家가 거의 없는 실적이다. 도서관학의 학부 교육만으로 전공이 다른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등이 필요로 하는 세분화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대학 도서관 司盞는 도서관학 외에도 다른 한 주제 분야에 학위를 가지도록 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敎職待遇(faculty status)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은 사서의 학력 여부에 상관없이 학부 졸업생과 대학원 졸업생에게 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다. 이들 전문직의 자질 및 지위 향상, 그리고 再敎育을 위한 도서관법, 대학설치 기준령 등의 法的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도서관의 모든 사서가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圖書館業務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강의이다. 그러면 다른 학과에서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직 대우를 받는데 도서관 사서의 석사학위를 인정하지 않음은 平衡의 原則에 어긋나는 일이다.

네째로는, 대학 도서관은 門戶를 개방하여야 한다. 우선 대학 도서관 이용자는 신분이 확실한 교수와 학생들이므로 이들을 신뢰하여 과감하게 開架式으로 서고를 개방함으로써 도서관 자료가 충분히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開架式 書架는 학생들이 서가에 자유롭게 드나들어 직접 책을 검토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을 지적으로 자극시켜 그들의 면학열을 높여 준다. 閉架式 도서관에서는 한 권의 책을 빌리기 위하여 몇십 분씩 기다리게 되며 신청한 책이 이미 대출되었거나, 원하는 내용과 달라 또 다른 책을 신청하는 불편을 겪다 보면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발길을 잃게 된다.

다섯째로는,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을 돕는 철저한 圖書館 敎育을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에게 주어지는 간단한 도서관 소개만으로는 제대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자료 출처원으로서의 書誌와 索引, 마이크로 자료 등은 철저한 도서관 敎育이 이루어지지 않

면 이용되지 못한다. 도서관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비치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실시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낭비일 뿐이며 그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용되는 도서관만이 진정한 도서관임은 常識 중의 상식이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법”이라는 과목을 敎養必 須科目으로 선정하여 보다 철저하게 자료와 정보 이용을 지도해야 한다. 현재 몇몇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법” 과목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에서는 1975년부터 “도서관 이용법” 과목을 敎養科目으로 개설하여 현재 주 2시간, 2학점으로 매학기 2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도서관마다 그 특수한 사정에 따라 여러 다른 문제를 갖고 있겠지만 위에 언급한 문제들이 가장 근본적이며 공통적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또한 이들 문제들은 도서관의 重要性에 대한 학교당국의 이해와 적극적인 후원으로 비교적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Ⅲ. 圖書館間의 相互 協力體制

도서관 사이의 協力體制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에 시작된 敎育의 의무화는 20세기 후반 대학과 대학원 敎育의 보편화까지 몰고 와서 敎育人口의 급속한 增加를 가져왔다. 그리고 敎育인구의 증가는 자연적으로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과 정보의 폭발과 자료의 다양성을 초래하여 이 시대는 情報 爆發時代, 出版物 洪水時代, 知識産業時代 등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 한 예로, 1800년에는 100여 종에 불과했던 科學 技術 雜誌가 1900년에는 10,000여 종, 1950년에는 100,000여종으로 8년 내지 12년마다 두 배씩 늘고 매 50년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價格 또한 그 종류 못지 않게 인상되고 있는데 학술잡지는 물론 단행본의 가격도 매년 뛰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한 예를 살

퍼 보면, 미국의 경우 1979년에서 1980년의 1년 사이에 12.4%가 오른 실정이다.

부족한 도서관 豫算에다가 막대한 자료의 증가와 가격 인상, 수집·정리·참고업무에 필요한 專門司관의 부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요의 급증, 제한된 보관장소 등은 도저히 개별 도서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 사이의 協力體制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한 도서관이 비치하고 있는 자료 체계는 그 도서관의 소유물이지만, 그 자료 안에 담겨 있는 지식과 정보는 결코 한 도서관만의 소유로 폐쇄될 수 없다. 그것은 한 국가의 자원이며 동시에 인류문화의 유산이며 자산이다. 모든 教育資料는 내일의 문화와 문명의 창조를 위하여 개방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財政의 貧困으로 기본적인 장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주 이용되지도 않는 값비싼 자료를 여러 도서관에서 중복 구입하거나, 사서의 부족으로 많은 新刊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데도 똑같은 책이 여러 곳에서 정리되고 있는 인력의 낭비는 “서로 돕는 도서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도서관들 사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의 도서관들끼리도 긴밀한 情報體制가 이루어져, 서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교환함으로써 마치 한 도서관처럼 움직이고 있는 서양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정보 협력체제는 참으로 원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 도서관 사이의 相互協力 內容을 살펴보면, 1967년에 국립 중앙도서관 주최로 「도서관 자료 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이 全文 12條로 채택되었고, 그 결과로 1968년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시행세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에는 15개의 도서관이 참가하여 相互貸借를 하도록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는 서류상의 명목뿐으로, 실제로는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KIET에서 주관하고 있는 相互貸借業務(정기간행물에 한함)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사이의 협력활동은 극히 미소하고 산발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는 非公式的

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보다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도서관 협력 체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大學圖書館 協議會 組織

대학 도서관은 소속해 있는 대학의 목적과 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소의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基本業務와 奉仕精神은 서로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大學圖書館 協議會를 구성하여 서로의 공통적인 요구나, 지역 또는 개별적 특수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로는 국립대학 도서관 협의회와 사립대학 도서관 협의회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국립이나 사립이라는 체제 자체가 教育情報業務의 내용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대학도서관 협의회의 부재는 여러 측면에서 不均衡을 招來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사립대학교 협의회에서 출판된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에는 서울대학교를 위시해서 국립대학교 도서관들의 所藏이 빠져 있어 종합목록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업무를 위하여는 단일한 대학도서관 협의체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협의회가 강력한 決定機關이 되려면 도서관장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圖書館會議에 가보면 도서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중요한 결론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또한 이러한 협의회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補助를 받아야 한다. 문교부에 도서관 분야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현재는 없음)를 만들어, 이 협의회의 활동을 보조하여야만 보다 원활하고 다양한 教育정보 봉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회를 통하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2. 相互貸借業務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별도서관이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藏書를 구비하는 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도서관이

희귀한 자료나 자주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일일이 다 구비할 필요 또한 없다. 물론 각 도서관이 기본 장서는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도서관간의 공식적인 資料 流通制度를 마련하여 相互貸借業務를 통하여 부족한 자료나마 최대한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3. 共同 整理業務

똑같은 책을 여러 수많은 도서관에서 목록 분류하는 整理作業의 중복은 참으로 막대한 시간과 재정,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對策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도서관에서 정리업무를 電算化하여 목록카드의 분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국립도서관 자료와 대학도서관 자료의 차이점과 기타 다른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서로 비슷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협의회에서 국립도서관과의 긴밀한 協力을 통하여 이 共同 整理業務를 발전시킴으로써 정리작업의 중복에서 오는 엄청난 낭비를 막아야 한다. 대학도서관끼리 저자별로 또는 주제별로 구분, 공동으로 분배·정리하면 새로 구입되는 책들을 신속하게 이용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정리작업에서 해방된 인력을 참고업무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능률적인 도서관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 정리업무는 目錄分類法의 통일을 전제로 하므로 도서관 업무의 標準化도 기대할 수 있다.

4. 共同 書誌·索引作成

체계적인 정보탐색과 능률적인 상호협력활동은 각 도서관의 장서를 함께 수록한 綜合目錄과 索引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아무리 좋은 논문이 많이 나와도 이들을 세분화된 주제별로 體系的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작성된 색인이 없을 때, 資料探索에 소모되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참으로 막대하다. 또한 각 도서관의 장서를 함께 수록해 놓은 종합목록의 미비 역시 원활한 자료의 流通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출간하고 있는 「외국도서 종합목록」은 전국 46개의 學術圖書館이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

외국도서의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목록은 도서관 相互協助를 목적으로 출간되고 있으나, 주제별 접근방도가 없고, 도서의 출판년도와 수록종합목록의 연도 사이에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서명이나 기타 부출기입 색인도 없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완전한 綜合書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에서 출간한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역시 이 협의회에 가입된 18개 도서관의 소장자료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改訂版이 신속하게 출간되지 못하고 있다. 기타 다른 부분적인 종합목록들이 몇 개 있으나 서지사항 표기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러한 종합목록, 서지, 색인 작성 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탐색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느 한 개별 도서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므로 대학도서관 협의회가 國家의 補助를 받아 주관하여야 한다.

5. 共同收書

가속도로 증가되는 자료와 가격인상, 그리고 한정된 보관장소 때문에 收書業務에 있어서도 도서관간의 協力은 불가피하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 학생수, 교내 연구기관 등에 따라 자주 이용되지 않는 高價의 자료,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자료, 지역적 특색을 띤 자료 등은 각 대학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도서관별로 配分하여 蒐集하여야 한다. 이는 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기는 하겠지만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장소 문제도 해결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6. 圖書館 業務의 自動化

가속도로 변하고 있는 사회현상 외에도, 현대 도서관 업무에 革新을 불러일으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컴퓨터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60년 후반부터 도서관의 여러 업무(수서, 대출, 문헌검색 등)들이 컴퓨터에 의해 自動化됨으로써 도서관 업무와 상호협력은 혁신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제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지식, 자료를 일일이 수동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양이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동화 업무는 각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작업인 바, 치밀한 계획하에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전체가 綜合的인 情報體制를 개발하여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시켜야 하겠다.

7. 地域社會의 情報業務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서관은 한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세계 문화·문명의 자산이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 도서관의 봉사업무가 지극히 미비하므로, 地域社會 發展에 필요한 情報業務도 담당하여야 한다. 도서관 상호협력 활동을 확대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보급함에 있어 지역사회와 개별 도서관의 특성을 염두에 둔 정보체제의 조직 또한 대학도서관의 과제라고 본다.

Ⅳ. 結 論

고등교육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학문·기술·산업의 발달을 초래하였고, 이는 또한 정보·지식·출판물의 생산과 수요를 증가시켜 오늘날의 도서관은 自給自足의 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정보 관리에 科學的 방법과 專門의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도서관간의 협력체제를 통하여만 바람직한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도서관은 그 자체의 운영방법을 검토·연구하여 教育情報機關으로서의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타대학 도서관과의 긴밀한 協力關係를 통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업무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협력관계는 대학 도서관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속하게 발족하고 있는 정보서서비스 기관과 기타 전문 학술단체, 공공기관, 회사 등의 다른 전문 도서관, 나아가서는 국제정보서서비스 기관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단위도서관내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정보요구는 일차적으로 相互 協助體制 안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그 다음 단계로 專門的인 서서비스機關에 의뢰한다. 그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國際情報流通網을 통해 전문적인 외국의 정보서서비스 기관까지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색은 한두 도서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國家的 次元에서 종합적인 大學圖書館 協議會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인들의 치밀한 연구와 기획 아래서 위의 모든 업무들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대학 도서관은 그 참다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전인적인 교육을 통하여 참된 인간을 육성하고 학문의 발전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전인류의 행복을 도모하려는 大學教育의 實踐者가 되기 위하여 대학 도서관은 넓게 열리고 서로 도와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하겠다. *